

# 농촌 치유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익의 관계\*

김경희<sup>a\*\*</sup> · 민재한<sup>b</sup> · 이해영<sup>c</sup>

<sup>a</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sup>b</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문연구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sup>c</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Lifestyle and Benefit Sought of Rural Healing Tourists

Kyung-Hee Kim<sup>a</sup> · Jae Han Min<sup>b</sup> · Hye Young Lee<sup>c</sup>

<sup>a</sup>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sup>b</sup>Post-Doc,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sup>c</sup>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between lifestyle and benefit sought of rural healing tourists. For data collection, a total of 3,00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by nationwide online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6.0. The factor analysis identified seven dimensions of the lifestyle : conservative, sports activity orientation, health orientation, consumption orientation, achievement orientation, adventure orientation, and personal orientation. Five dimensions of benefit sought were identified as psychological recovery, outdoor activities, rest, rural experience, and exercise. The results of the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adventure orientation of lifestyle and psychological recovery, outdoor activities, rural experience, exercise of benefit sought were highly correlated. This means it is important to place an emphasis on psychological recovery, outdoor activities, rural experience, and exercise for tourists looking for an adventure away from everyday life. Rural healing tourism marketers should consider lifestyle aspect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benefit sought of rural healing tourism.

**Key words:** lifestyle, benefit sought, rural healing tourism,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 1. 서론

자연을 기반으로 한 농촌을 찾는 농촌관광객들은 실제로 일상 탈출과 휴식을 위해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농촌진흥청, 2022).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우울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농촌에서 쉼과 휴식을 찾고, 건강을 증진하며 일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인식이 늘고 있다(김경희, 황대용, & 이해영, 2021).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치유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

를 바탕으로 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활동, 관심, 견해 등이 반영되어 개인이 그들의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생활하는 패턴이다(Blackwell, Miniard, & Engel, 2001). 라이프스타일 정보는 제품 포지셔닝과 시장세분화에 유용하며 문화에 관계없이 소비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Plummer, 1974), 활동(Activities), 관심(Interests) 및 의견(Opinions) 등의 영역으로 측정할 수 있다(Wind, 1971).

라이프스타일은 현상의 집단이며, 삶의 여러 측면에 스며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 관심사를 암시한다(Feldman, &

주요어: 라이프스타일, 추구편익, 농촌 치유관광, 정준상관분석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56090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김경희) 전화: 063-238-2630, e-mail: khkim08@korea.kr

Thielbar, 1975). 연구자들은 라이프스타일 변수가 인구학적 변수나 사회학적 변수 보다 소비자로서의 관광객에 대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Zins, 1998). 따라서 라이프스타일 유형화는 관광시장에 대해 독특하고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게 된다(Chen, Huang, & Cheng, 2009). 마케팅 관리에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패턴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케터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함으로써 고객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마케팅할 수 있다(Plummer, 1974).

추구편의는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속성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요구나 욕구를 말한다(이민수, 박덕병, & 윤유식, 2006). 추구편의에 대한 이해는 관광객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게 한다(박덕병, & 이민수, 2016).

라이프스타일 등 여행자의 특성은 여행에 대한 추구편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Jang, Morrison, & O'Leary (2002)는 도시여행 유형은 진기함/자연추구가 높고, 해변리조트 여행 유형은 탈출/휴식추구, 가족/야외활동 추구가 높음을 제시하였다. Pesonen, Laukkanen, & Komppula(2011)은 잠재 웰빙 관광객의 추구편의 유형에 따른 웰빙관광 선호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Voigt, Brown, & Howat(2011)는 웰니스 관광객 유형별 추구편의 차이를 분석하여 뷰티·스파관광객은 탈출과 휴식, 진기함과 호화로우름, 라이프스타일 리조트 관광객은 신체적 건강과 외모, 회복과 자부심을, 영적도파 관광객은 초월성을 추구함을 제시하였다.

농촌 치유관광의 시장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특성과 의사결정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아직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의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관광객이 농촌 치유관광에서 추구하는 편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농촌 치유관광 시장 확대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가 되며, 농촌 치유관광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정준상관분석은 두 개의 변수집합에 대하여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정하지 않고 한 변수집합으로부터 도출된 선형결합이 다른 변수집합으로부터 도출된 선형결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두 집합의 비분리 자료(nonpartitioned data)에 대하여 별도의 요인분석을 적용한 후, 짝을 이루는 요인점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박덕병, & 이민수, 2015). 정준상관분석은 다수의 요인차원에 존재하는 관계를 동시에 파

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요인과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의 요인 내에 존재하는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정준상관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의는 모두 심리적인 변인으로 동시에 파악한다면 관광객의 특성을 심도있게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 변수군과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의 변수군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이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농촌 치유관광 마케팅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마케팅 및 운영 전략에 필요한 소비자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박슬기, & 조원섭, 2020)로써 관광분야에서 여러 연구들을 통해 관광객의 소비행동양식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으며, 관광객의 태도와 심리적인 부분 및 욕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가치가 있다(이신애, 2016).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른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였지만 특정집단이나 개인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또는 태도로 정의될 수 있다(Duncan, 1965). 또한 사람들의 활동(취미, 업무 등), 관심(구체적인 주제, 이벤트 등), 의견(사회적 이슈 등과 관련된 믿음) 등을 반영하여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Plummer, 1974).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활방식으로 사람들의 소비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인적 특성이며(Herawaty, Tresna, & Hattiqah, 2019),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Chouk, & Mani, 2019). 이러한 면에서 라이프스타일은 마케팅과 관련하여 지속해서 발전해왔으며 농촌 관광 행동분석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정보보다 목표시장 및 치유관광객 행동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관광분야에서 실시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Zins(1998)은 독일의 테마호텔 레저관광객을 대상으로 AIO(Activity, Interest, Opinion)기법을 활용하여 라이프스타일

에 따른 호텔 선택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여가지향성, 일지향성, 향락지향성, 환경지향성, 사회지향성, 폐쇄형, 자기중심형으로 나타났다. 전원배, & 박인규(2001)는 호텔 레스토랑 고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가정지향형, 자기중심형, 외향적 활동형, 충동구매 및 사고형, 유행추구형, 실리추구형, 보수주의형, 성취지향적 보수주의형의 8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속성(음식의 맛과 질, 메뉴, 시설 및 환경, 가격가치 및 서비스)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암왕인문화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박종찬, & 이덕순(2013)의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이 사회지향형과 자기중심형의 2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졌으며 유형에 따라 축제 선택속성에 차이가 있고 만족도 및 재방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Sohn, & Yuan (2013)은 와인페스티벌에 참여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VALS(Values & Lifestyle) 척도를 이용하여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실현형, 탐험형, 성취형, 순응형, 혁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같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광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AIO, VALS 등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측정도구들을 활용하여 연구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관광과 관련한 연구로 허지현, 최현식, & 최영민(2008)은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농촌체험관광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은 성취지향형, 자아발전형, 문화추구형, 여가지향형으로 나타났다. 성취지향형은 농가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발전형과 여가지향형은 자연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추구형과 여가지향형은 놀이체험을, 자아발전형과 문화추구형은 건강체험을, 성취지향형과 문화추구형은 역사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광인, & 김정준(2009)은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이 농촌체험프로그램 선호도와 농촌관광지 요구도, 재방문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은 지식추구, 건강추구, 근검절약, 여가향유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라이프스타일은 농촌체험 선호도와 농촌체험관광지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며, 농촌체험프로그램 선호도는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 농촌체험관광지 요구도는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호하는 농촌체험활동이 다르며, 라이프스타일이 농촌체험 선호도와 요구도는 물론 재방문의도와 구전의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추구편익

추구편익(benefit sought)은 사용하는 제품의 속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지식이며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욕구나 보상을 말한다(Russell, 1968).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할 때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까지 같이 구매하기 때문에 추구편익은 제품을 사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Gitelson, & Kerstetter, 1990).

관광분야에서 추구편익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관광과 관련된 추구편익은 사람들이 욕구 충족을 위해 관광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활동과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Morakabati, & Kapuscinski, 2016). 또한 Morrison, & Thomas(1999)은 추구편익의 개념을 소비자가 관광상품을 구매할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소비자는 최고의 편익을 제공해주는 상품을 선택하고 만족하지 못한 상품은 선택하지 않는다. 추구편익은 인구통계적 또는 라이프스타일 변수보다 소비자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더욱더 적합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이승희, & 이현수, 2014), 치유관광객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상자별 차별화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중 관광분야의 추구편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Frochot(2004)는 스코틀랜드 농촌관광객을 대상으로 추구편익에 따른 시장 세분화를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세분시장은 오랜 휴가기간을 가지는 44세 이하의 젊은층으로 구성된 활동형, 캠핑을 선호하는 휴식형, 호텔이나 자가 식사를 선호하는 관조형, 농가민박 및 유적지 관광을 선호하는 농촌형으로 분류하였다. 김용만, 정정희, & 허진(2006)은 프로축구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구편익과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상탈출, 스포츠 체험, 사회적 교류로 요인화 되었으며, 스포츠 체험과 사회적 교류 추구편익은 관람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홍정화(2011)는 지역 웰빙관광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웰빙관광을 추구하는 편익요인을 군집분석한 결과 건강증진 추구형, 경험 및 사회적 교류형, 휴식 추구형으로 나타났다. 심윤정, 허양희, & 오홍철(2014)은 호텔 숙박객들의 추구편익에 근거하여 포지셔닝을 분석한 결과 순수 관광객은 조리시설 및 객실요금, 비즈니스 관광객은 위치, 신속한 체크인/체크아웃, 호텔 이미지를 중요시함을 제시하였다.

농촌관광과 관련한 연구로 이민수, 박덕병, & 윤유식(2006)은 농촌관광객을 추구편익에 따라 시장세분화하였다. 농촌관광객의 추구편익은 야외활동추구, 자연경관추구, 문화(기념)체험추구, 전통(민속)체험추구, 지역특산물추구, 품격추구로 나타났다.

으며 군집분석결과 소극형, 시골답니형, 복합형, 문화탐구형, 품격휴식형으로 나타났다. 군집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관광행동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균(2007)은 농촌관광 추구편의는 농촌체험추구, 휴식추구, 야외활동추구, 자연탐방추구, 가족응대추구로 나타났으며 군집분석결과 가족유대/농촌체험형, 자연탐방형, 가족유대/휴식추구형이 도출되었다. 군집별 팜스테이 이용특성과 체험활동 선호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광객의 추구편의에 따라 관광행동과 선호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3.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의의 관계

본 연구는 치유관광 방문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의 간의 정준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의의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 측면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Orth et al.,(2004)는 수제맥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수제맥주 브랜드 추구편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라이프스타일은 보수주의형(TV-opposing moderates), 스틸추구형(Unromantic thrill seeker), 사색적 낭만형 (Unexcited romantic), 폐쇄형(Lazy opportunists), 향락 지향형(Interactive party animals), 내향적 자기중심형(Introvert individualists), 외향적 활동형(Outgoing socializing), 모험형(Rushing adrenaline addicts)으로 요인화 하였으며, 추구편의는 기능적, 금전적, 사회적, 긍정적, 부정적 정서적 가치로 요인화 하였다.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의의 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보수주의형과 부정적 정서적 가치와 금전적 가치 간의 관계, 사색적 낭만형과 금전적 가치 간의 관계, 폐쇄형과 긍정적 정서적 가치 간의 관계, 향락지향형과 금전적 가치 간의 관계, 내향적 자기중심형과 사회적 가치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Chen, Huang, & Cheng(2009)은 대만 켄팅국립공원 숙박관광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여행숙소와 정보획득경로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가족지향형, 사회지향형, 세련된 여행지향형으로 나타났으며,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숙소와 정보경로에 대한 추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Srihadi, Sukandar, & Soehadi, (2016)는 자카르타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여행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모험지향, 소비지향, 성취지향, 보수지향, 스포츠활동지향로 나타났으며, 군집분석결과 문화관심소풍종독형, 스포츠문화탐험형, 휴가열망형, 전반형으로 나타났으며,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관광행동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희(2005)는 일본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 추구 혜택과의 관계연구에서 요인분석 및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대생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외모지향형, 유행 지향형, 성 평등 지향형, 계획/관리형, 경제 지향형의 5개 유형으로 추구 혜택은 개성추구, 상표추구, 편의추구, 유행추구, 코드/체형 보완 추구의 5개 유형으로 나누어졌으며, 라이프스타일 유형중 외모 지향과 유행지향 정도가 높을수록 상표추구와 유행추구 성향이 높고 편의추구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들의 경제 지향 정도가 높을수록 편의추구, 유행추구, 코드/체형 보완 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개성추구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류호영, & 최정탁(2007)은 골프연습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의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목표달성은 제품에 유의한 영향을, 브랜드는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그리고 유행추구, 목표달성, 자기계발은 촉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김연수(2008)는 오페라 관람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오페라 관람 추구편의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라이프스타일을 자기중심형, 과시성향형, 문화지향형, 가족중심형으로 구분하였고, 가족중심형과 목적지향 추구형, 과시성향성과 문화생활형 및 여가생활 추구형 간의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문태영(2010)은 배드민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스포츠 웨어 추구혜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패션·유행추구, 사회지향성과 이상적 추구혜택 간의 관계, 물질추구, 현실 만족과 브랜드 추구혜택 간의 관계, 자기충실, 사회지향성, 건강추구와 편안함 추구혜택 간의 관계 등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박득희, & 정희진(2014)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싱글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추구편의와 해외여행 행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싱글족을 중위집단, 적극적 여성집단, 덜 적극적 여성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시장 세분화를 통해 각 군집간에 추구하는 편익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진영(2015)는 국내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이용객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이용편의, 이용만족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 라이프스타일과 숙박기능 및 관광기능 편익 간의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박슬기, & 조원섭(2020)은 박람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라이프스타일을 지역사회관심형, 가족중심형, 사회적, 성취형, 여가활동형으로 요인화하였고, 박람회 참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추구편의를 체험추구, 휴식추구, 과시추구, 지식추구형으로 요인화하였다.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중심형은 체험추구형과 휴식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여가활동형은 과시추구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성취형은 지식추구

〈표 1〉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익의 관계 선행연구

연구자	대상	주요결과
이옥희 (2005)	일본대학 여대생의 의복 구매 추구편익	외모지향과 유행지향 라이프스타일은 상표추구와 유행추구 편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경제지향 라이프스타일은 편익추구, 유행추구, 코드/체형 보완 추구 편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류호영, & 최정락 (2007)	국내 골프장 이용고객의 골프연습장 선택 추구편익	골프이용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중 목표달성은 추구편익 요인중 제품에 정(+)의 영향을, 브랜드는 가격에 정(+)의 영향을, 유행추구, 목표달성, 자기계발은 촉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김연수 (2008)	국내 오페라 관람객의 오페라 관람 선택에 대한 추구편익	관람객의 추구편익에 있어서 목적지향성은 자기중심형 라이프스타일이 가장 높았으나, 문화생활 추구형과 여가생활형에서는 과시성향형이 높게 나타남
문태영 (2010)	배드민턴 클럽 참가자의 스포츠웨어 구매 추구편익	라이프스타일 유형 가운데 패션/유행추구, 사회지향성은 추구편익 요인중 이상적 추구혜택에 정(+)의 영향을, 물질추구, 현실만족은 브랜드 추구혜택에 정(+)의 영향을, 자기충실, 사회지향성, 건강추구는 편안함 추구혜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박득희, & 정희진 (2014)	싱글여성 소비자의 해외여행 추구편익	중위집단은 스트레스 해소를 추구하며, 적극적 여성집단은 탐험과 자기발견을 가장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박진영 (2015)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방문객의 추구편익	라이프스타일이 숙박기능 편익과 관광기능 편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박슬기, & 조원섭 (2020)	국내 박람회 참가자의 박람회 추구 편익	라이프스타일 요인중 가족중심형은 추구편익 요인중 체험추구형과 휴식추구형에 정(+)의 영향을, 여가활동형은 과시추구형에 정(+)의 영향을, 성취형은 지식추구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Orth et al. (2004)	국외 수제맥주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에 대한 추구편익	보수주의형 라이프스타일과 금전적, 부정적 정서적 가치추구, 사색적낭만형, 향락지향성과 금전적 가치추구, 폐쇄형과 긍정적 정서적 가치 추구, 내향적 자기중심형과 사회적 가치추구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Chen, Huang, & Cheng(2009)	대만 쉼터국립공원 숙박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여행선호	라이프스타일은 가족지향형, 사회지향형, 세련된 여행자형으로 나타났으며,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숙소와 정보경로에 대한 추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
Srihadi, Sukandar, & Soehadi, (2016)	자카르타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여행특성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모험지향, 소비지향, 성취지향, 보수지향, 스포츠활동지향으로 나타났으며, 군집분석결과 문화관심소핑중독형, 스포츠문화탐험형, 휴가열망형, 전반형으로 나타났으며,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관광행동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 추구편익의 세부요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익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연구대상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추구편익의 세부요인이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농촌 치유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익에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치유관광객의 어떠한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어떠한 추구편익의 요인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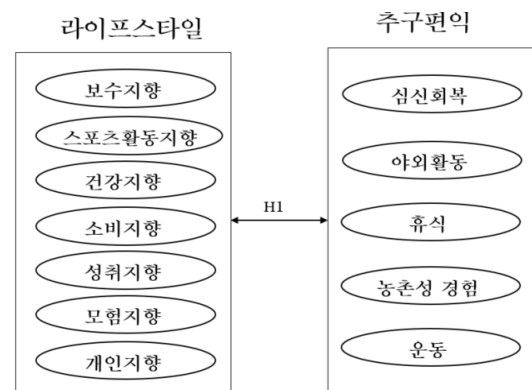
은 개인의 성격을 포함하여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삶의 양식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문태영, 2010). 류호영, & 최정락(2007)은 골프연습장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익이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박슬기, & 조원섭(2020)은 박람회 방문객의 라이프스타일이 추구편익에 영향을 미치며, 추구편익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 박득희, & 정희진(2014)은 싱글여성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추구편익과 해외여행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라이프스타일과 관광객의 추구편익은 관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관광분야나 마케팅분야의 선행연구들은 라이프스타일과 여행행동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다(Chen, Huang, & Cheng, 2009).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의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변수로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익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이프스타일



〈그림 1〉 연구모형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촌 치유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의의 정준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 HI. 농촌 치유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의 간에는 유의한 정준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3.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농촌 치유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리서치 전문기관에 구축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할당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성인남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1년 8월 기준)를 기준으로 하여 성, 지역, 연령을 고려한 제곱근비례배분 방법을 이용하였다. 대상자들은 일반 소비자들로 농촌 치유관광을 경험한 층과 아직 농촌 치유관광을 경험하지 않은 잠재 치유관광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조사기간은 2021년 8월 2일에서 8월 27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사에 앞서 문항의 이해도와 표현상의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5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표현을 보완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패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000명을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3.3. 측정도구

농촌 치유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은 김현, 장호성, & 조용석(2019)의 라이프스타일 항목(도전지향, 소비지향, 건강지향, 안정지향, 개성지향)과 Srihadi, Sukandar, & Soehadi(2016)에서 활용한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 항목(모험지향, 소비지향, 성취지향, 보수지향, 스포츠활동지향)을 참고하여 농촌 치유관광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20문항을 측정에 활용하였다. 농촌 치유관광객의 추구편의는 Frochot(2004)의 농촌지역 관광객의 추구편의 항목(야외활동, 농촌성 경험, 휴식, 운동)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16문항을 측정에 활용하였다.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의 항목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통해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구의 단위인 농촌 치유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의의 요인구조와 개념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된 변수들에 대한 주성분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배리맥스회전방법(varimax rotation method)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시 변수와 요인수의 선택에는 Hair 등(2006)의 기준을 참고하여 요인부하량 0.4이상, 요인고유치 1이상, 원 변량의 60%이상을 설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설인 농촌 치유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의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요인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은 다변량 기법의 하나로 변수들의 군집간 선형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 변수군들과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의 변수군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상관분석이나 회귀분석 등으로 밝히지 못하는 다수의 변수군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경희 & 박덕병, 2011).

## 4. 분석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1,502명(50.1%)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0대 이상 664명(22.1%), 50대 557명(18.6), 40대 532명(17.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이 1,522명(50.7%)으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1,665명(55.5%)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종사자가 821명(27.4%)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이 445명(14.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17명(13.9%)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0-400만원 미만 923명(30.8%), 400-600만원 미만 857명(2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농촌 치유관광을 경험해 본 비율은 658명(21.9%)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N=3,000)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502(50.1)	관리자		216(7.2)
	여성	1498(49.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17(13.9)
연령	15~19세	251(8.4)	사무 종사자		821(27.4)
	20~29세	518(17.3)	서비스 종사자		168(5.6)
	30~39세	478(15.9)	판매 종사자		94(3.1)
	40~49세	532(17.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0.9)
	50~59세	557(1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3(2.4)
	60대 이상	664(22.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8(1.6)
			단순노무 종사자		69(2.3)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706(23.5)	군인		9(0.3)
	전문대 재학/졸업	394(13.1)	전업주부		330(11.0)
	대학교 재학/졸업	1522(50.7)	학생		445(14.8)
	대학원 재학/졸업	378(12.6)	기타		284(9.5)
			200만원 미만		429(14.3)
결혼 여부	미혼	1193(39.8)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0~400 만원미만	923(30.8)
	기혼	1665(55.5)		400~600만원미만	857(28.6)
				600만원 이상	791(26.4)
			농촌 치유관광 경험	경험있음	658(21.9)
			경험없음	2342(78.1)	

## 4.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 4.2.1. 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조사대상자의 라이프스타일은 총 20개의 측정항목을 투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Adequacy) 값이 0.844로 기준치 0.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chi^2 = 26127.684$ (df=190,  $p < 0.001$ )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수는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설명분산의 누적값은 73.11%로 나타났다. 요인 내에서의 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알파(Cronbach's Alpha) 값이 0.64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기준값 이상으로 나타났다(이충기, 2017).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 1은 '나는 주말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퇴근 후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 '내 여가활동은 주로 집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보수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나는 스포츠활동을 즐긴다', '나는 야외스포츠활동을 즐긴다', '나는 정기적으로 신체운동을 한다를 포함하고 있어 '스포

츠활동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먹는다', '나는 건강에 좋은 습관을 규칙적으로 실천한다', '나는 일상회복을 위해 쉽·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나는 쇼핑에 많은 돈을 쓴다', '나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먼저 구입하는 편이다', '나는 잘 알려진 브랜드를 구매한다'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내가 세운 개인적인 목표는 실용적이고 실현가능하다',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성취에 주의를 기울인다'로 구성되어 있어 '성취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나는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데 관심이 있다', '나는 문화행사(전시회, 콘서트, 오페라, 극장)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긴다'로 구성되어 있어 '모험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7은 '나는 자유분방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성격대로 살고싶다'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라이프스타일은 '보수지향'이 가장 높은 분산설명력(12.251%)과 가장 높은 평균값(3.64)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지향'은 평균값이 2.8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보수지향은 높으나, 소비지향은 낮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표 3〉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및 변수명	요인부하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alpha$	평균a
<b>요인 1: 보수지향</b>		2.450	12.251	0.847	3.64
나는 주말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893				
나는 퇴근 후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	.846				
내 여가활동은 주로 집 주변에서 이루어진다.	.836				
<b>요인 2: 스포츠활동지향</b>		2.432	12.161	0.882	2.90
나는 스포츠활동을 즐긴다.	.886				
나는 야외스포츠활동을 즐긴다.	.876				
나는 정기적으로 신체운동을 한다.	.726				
<b>요인 3: 건강지향</b>		2.314	11.572	0.813	3.18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먹는다.	.816				
나는 건강에 좋은 습관을 규칙적으로 실천한다.	.793				
나는 일상회복을 위해 쉽·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770				
<b>요인 4: 소비지향</b>		2.048	10.242	0.751	2.86
나는 쇼핑에 많은 돈을 쓴다.	.848				
나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먼저 구입하는 편이다.	.822				
나는 잘 알려진 브랜드를 구매한다.	.691				
<b>요인 5: 성취지향</b>		1.983	9.916	0.771	3.35
내가 세운 개인적인 목표는 실용적이고 실현가능하다.	.825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810				
나는 나의 개인적인 성취에 주의를 기울인다.	.582				
<b>요인 6: 모험지향</b>		1.895	9.474	0.677	3.41
나는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데 관심이 있다.	.805				
나는 문화행사(전시회, 콘서트, 오페라, 극장)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711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긴다.	.675				
<b>요인 7: 개인지향</b>		1.499	7.496	0.640	3.56
나는 자유분방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	.841				
나는 내 성격대로 살고싶다.	.785				

설명분산의 누적값 = 73.11%, KMO = 0.84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chi^2 = 26127.684(df=190, p<0.001)$

주: a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 4.2.2. 추구편의 요인분석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추구편의는 총 16개의 측정항목을 투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Adequacy) 값이 0.924로 기준치 0.5보다 높게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chi^2 = 26485.380(df=120, p<0.001)$ 로 나타나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수는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설명분산의 누적값은 73.61%로 나타났다. 요인 내에서의 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 알파(Cronbach's Alpha) 값이 0.723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기준값 이상으로 나타났다(이충기, 2017).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 1은 '심리적 안정', '일상의 회복/재충전',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집중'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신회복'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탁트인 시골을 경험', '오염되지 않은 곳을 경험', '자연을 배움', '아름다운 경치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외활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편안함', '신체의 휴식', '일상을 벗어남'을 포함하고 있어 '휴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지역의 사람들과의 만남', '농촌의 생활을 경험', '다른 문화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어 '농촌성 경험'으로



〈표 4〉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익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및 변수명	요인부하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alpha$	평균a
<b>요인 1: 심신회복</b>		3.212	20.076	0.902	4.32
심리적 안정	.812				
일상의 회복/재충전	.784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782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집중	.754				
<b>요인 2: 야외활동</b>		2.626	16.414	0.847	4.15
탁트인 시골을 경험	.789				
오염되지 않은 곳을 경험	.745				
자연을 배움	.671				
아름다운 경치 감상	.624				
<b>요인 3: 휴식</b>		2.199	13.741	0.814	4.31
편안함	.828				
신체의 휴식	.686				
일상을 벗어남	.644				
<b>요인 4: 농촌성 경험</b>		2.061	12.884	0.723	3.60
지역의 사람들과의 만남	.789				
농촌의 생활을 경험	.742				
다른 문화의 경험	.722				
<b>요인 5: 운동</b>		1.680	10.498	0.783	3.66
스포츠 활동	.872				
모험	.841				

설명분산의 누적값 = 73.61%, KMO = 0.92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chi^2 = 26485.380(df=120, p<0.001)$

주: a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스포츠 활동’, ‘모험’을 포함하고 있어 ‘운동’으로 명명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추구편익은 ‘심신회복’이 가장 높은 분산설명력(20.076%)과 가장 높은 평균값(4.32)을 나타내고 있다. ‘농촌성 경험’은 평균값이 3.6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심신회복 추구는 높으나, 농촌성 경험은 낮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 4.3. 라이프스타일과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익의 정준상관분석

라이프스타일과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익의 정준상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라이프스타일 7개의 요인과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익 5개의 요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라이프스타일 7개 요인을 독립요인군으로 설정하고,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익 5개 요인을 종속요인군

으로 정한 후 분석한 결과 정준상관계수(Canonical Coefficients)가 유의성을 갖는 정준함수( $p<0.05$ )가 4개 도출되어 라이프스타일과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익은 유의한 정준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준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정준함수 1은 .461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준함수 2는 .266, 정준함수 3은 .108, 정준함수 4는 .072로 낮게 나타나 제외하기로 하였다.

각 변수의 중요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차적재량(cross loading)을 많이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정준함수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Jang, & Ryu 2006; Kim et al. 2007)와 같이 정준적재량(Canonical Loading)을 두 변수군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고려하였고, 절대값 0.3 이상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Hair et al. 2006). 적재량의 부호는 관계의 방향을 나타내고 적재량의 크기는 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정준함수 1은 부호가 음수로 관계의 방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있는 중요 요인으로는 정준함수 1에서 ‘모험지향(-.678)이 가장 높게

(표 5) 라이프스타일과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의의 정준상관분석 결과

Factors	Standardized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s				Canonical Loadings				Cross Loadings							
	1	2	3	4	1	2	3	4	1	2	3	4				
<b>라이프스타일</b>																
보수지향	-.236	.363	.063	.079	-.262	.575	-.114	.012	-.121	.153	-.012	.001				
스포츠활동 지향	-.166	-.773	-.480	.477	-.527	-.721	-.171	.338	-.243	-.191	-.018	.024				
건강지향	-.122	-.151	.271	.183	-.551	-.310	.260	.219	-.254	-.082	.028	.016				
소비지향	.015	-.308	-.098	-.936	-.410	-.331	-.073	-.727	-.189	-.088	-.008	-.052				
성취지향	-.122	.371	.446	.289	-.644	.021	.235	.250	-.297	.005	.025	.018				
모험지향	-.678	.159	.363	-.233	-.870	-.094	.237	-.191	-.401	-.025	.026	-.014				
개인지향	-.230	.274	-.903	.052	-.528	.338	-.727	.013	-.243	.090	-.078	.001				
<b>추구편의</b>																
심신회복	-.224	.555	.126	.803	-.664	.653	-.084	.267	-.306	.173	-.009	.019				
야외활동	.004	.234	.602	.683	-.680	.432	.159	.259	-.313	.115	.017	.019				
휴식	-.070	.486	-.635	-1.267	-.586	.674	-.265	-.318	-.270	.179	-.028	-.023				
농촌성 경험	-.492	-.288	.814	-.586	-.833	-.169	.455	-.260	-.384	-.045	.049	-.019				
운동	-.467	-.671	-.937	.274	-.853	-.239	-.401	.192	-.393	-.063	-.043	.014				
Canonical correlation	정준함수 1				정준함수 2				정준함수 3				정준함수 4			
	.461				.266				.108				.072			
Wilk's lambda	.719				.913				.982				.994			
분자자유도	12571.810				10428.585				8254.475				5982.000			
p-value	.000				.000				.000				.019			

<sup>a</sup> Four significant canonical functions were selected( $p < .05$ ).

나타났으며, 정준함수 2에서는 ‘스포츠활동지향’(-.77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의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준함수 1에서는 ‘농촌성경험’(-.492)이 가장 높고, 정준함수 2에서는 ‘운동’(-.67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준적재량(Canonical Loading)의 값이 절대값 0.4 이상인 경우 각 정준변량을 대표하는 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고재윤, 홍성수, & 유은이, 2013). 정준함수 1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의 ‘모험지향’(-.870), ‘소비지향’(-.410), ‘건강지향’(-.551), ‘개인지향’(-.528), ‘스포츠활동지향’(-.527), ‘성취지향’(-.644)이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의의 ‘농촌성경험’(-.833), ‘휴식’(-.586), ‘야외활동’(-.680), ‘운동’(-.853), ‘심신회복’(-.664)이 정준변량 대표 변수로 간주할 수 있고, 정준함수 2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의 ‘보수지향’(.575), ‘개인지향’(.338), ‘스포츠활동지향’(-.721)이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의의 ‘휴식’(.674), ‘야외활동’(.432), ‘심신회복’(.653)이 정준변량 대표변수로 간주할 수 있다.

교차적재량(cross loading)은 정준함수 1에서 라이프스타일의 ‘모험지향’(-.401)이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의의 ‘농촌성경험’(-.384), ‘야외활동’(-.313), ‘운동’(-.393), ‘심신회복’(-.306)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구편의 중 ‘운동’이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있어 모험지향과 운동이 가장 큰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결론

농촌을 방문하는 치유관광객이 추구하는 편의는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관광객들의 라이프스타일 차원을 규명하고,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이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보수지향, 스포츠활동지향, 건강지향, 소비지향, 성취지향, 모험지향, 개인지향의 7개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Srihadi, Sukandar, & Soehadi, 2016)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 중 보수지향, 개인지향의 평균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지향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과 자유분방한 생활방식을 선호하나 소비지향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호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심신회복, 야외활동, 휴식, 농촌성 경험, 운동의

5개 요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Frochot, 2004)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 중 심신회복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성 경험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치유관광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일상회복 등 심신회복에 대한 추구가 높은 반면, 농촌성 경험에 대한 추구는 비교적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치유관광객은 기존 농촌관광처럼 농촌을 경험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적 요소를 가진 활동을 통해 심신을 회복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라이프스타일과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익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라이프스타일과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익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객 유형별 추구편익에 차이가 있었던 선행연구(박득희, & 정희진, 2014; 박솔기, & 조원섭, 2020; Chen, Huang, & Cheng, 2009; Jang, Morrison, & O'Leary, 2002; Pesonen, Laukkanen, & Komppula, 2011; Srihadi, Sukandar, & Soehadi, 2016; Voigt, Brown, & Howat, 2011)와 유사한 결과이다.

정준적재량을 기준으로 두 변수군 간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정준함수 1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의 스포츠활동지향, 건강지향, 소비지향, 성취지향, 모험지향, 개인지향이 농촌 치유관광 추구편익의 심신회복, 야외활동, 휴식, 농촌성 경험, 운동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음의 방향으로 부호의 방향이 같게 나타났다. 정준함수 2에서는 보수지향, 스포츠활동지향, 개인지향이 심신회복, 야외활동, 휴식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호의 방향을 살펴보면, 스포츠활동지향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 여성관광객이 해외여행에서 탐험과 자기발견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박득희, & 정희진, 2014)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추구편익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히 보수지향, 개인지향적인 유형의 관광객들이 농촌 치유관광에서 심신회복, 야외활동, 휴식에 대한 추구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모험지향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치유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야외에서의 심신회복 증진 치유프로그램, 농촌성을 바탕으로 한 치유프로그램 등으로 색다른 경험과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지역의 특색이 담긴 문화활동이나 주민과의 교류, 마을둘레길 산책, 농업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치유관광객들이 심리·정서적 치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치유관광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이미지 구축과 농·특산물과 기념품 등의 다채로운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스포츠활동지향을 가진 치유관광객들은 운동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치유행동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트레킹 등 중·고강도의 운동을 통해 이러한 유형의 치유관광객들이 신체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구하는 치유적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의 자연을 기반으로 한 운동치유의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전문성 있는 운동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지향이나 개인지향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치유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농촌에서 적절한 휴식과 야외활동으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자연에서의 요가·명상, 치유정원 감상 등으로 이러한 유형의 치유관광객들이 심신을 이완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조용한 쉼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에서 쉼과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제공과 건강한 농·특산물 등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익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농촌 치유관광객의 개인적 성향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농촌 치유관광 운영자는 치유관광 참여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익을 고려한 세분화된 치유서비스를 마련하고, 세분시장별로 다가갈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농촌 치유관광 시장 확대를 위해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치유관광 홍보와 이미지 구축으로 농촌 치유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공간으로서 농촌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차원의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치유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치유관광 현장의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 잠재소비자와 경험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농촌 치유관광 경험자의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전국단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로서 그 결과에 의미가 있다. 라이프스타일과 추구편익의 관계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효과적인 농촌 치유관광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위해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농촌 치유관광객의 실제 행동과 연계하여 관광행동특성을 분석한다면 보다 세부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재윤, 홍성수, & 유은이. (2013). 외식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한식메뉴 선택속성의 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25(2), 155-175.
- 김경희, & 박덕병. (2011). 농촌소비자의 추구편의와 선택속성의 관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3), 327-339.
- 김경희, 황대용, & 이해영. (2021). 농촌 치유관광객 시장세분화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8(1), 13-23.
- 김용만, 정정희, & 허진. (2006). 프로축구 관중의 추구 편익이 관람만족, 관람태도, 재관람의도 및 타인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1(3), 105-117.
- 김연수. (2008).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오페라 관람객의 세분화 및 추구편익 연구. *음악응용연구*, 1, 29-55.
- 김현, 장호성, & 조용석. (2019). 해외여행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세분시장별 결정요인: 유럽방문객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8(8), 145-160. doi: 10.24992/KJHT.2019.12.28.08.145
- 농촌진흥청. (2022). *농촌관광 실태조사(국민부문)*. 완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류호영, & 최정탁. (2007). 골프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이 편익추구에 미치는 영향. *골프연구*, 1(2), 23-35.
- 문태영. (2010). 배드민턴 참여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스포츠웨어 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1(7), 2483-2490.
- 박덕병, & 이민수. (2015). 농촌교육농장 방문객의 선호 체험과 교육적 효과 간의 정준상관관계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7(3), 63-81.
- 박덕병, & 이민수. (2016). 추구편익에 따른 음식관광 시장세분화 - 로컬푸드 및 농가 레스토랑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3(3), 321-334. doi:10.12653/jecd.2016.23.3.0321
- 박득희, & 정희진. (201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싱글 여성 소비자들의 추구편익과 해외여행행동에 대한 연구. *관광학연구*, 38(1), 55-77.
- 박슬기, & 조원섭. (2020). 박람회 방문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추구편익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 연구저널*, 34(1), 143-156. doi:10.21298/IJTHR.2020.1.34.1.143
- 박종찬, & 이덕순. (2013). 역사인물축제 방문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선택속성 및 성과차이: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5(4), 40-56.
- 송광인, & 김정준. (2009). 관광객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농촌체험관광 영향관계 연구. *농촌계획*, 15(2), 111-120.
- 심윤정, 허양희, & 오홍철. (2014). 추구편익에 기초한방문목적별 부산지역 호텔 포지셔닝 연구: 특1급 호텔과 레지던스 호텔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6(1), 243-262.
- 이민수, 박덕병, & 윤유식. (2006). 농촌관광 방문객의 추구편익에 따른 시장세분화. *관광학연구*, 30(6), 219-240.
- 이신애. (2017). 라이프스타일, 소비자자신감이 소비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구조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옥희. (2005). 일본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의복추구혜택과의 관계 연구. *복식문화연구*, 13(6), 857-870.
- 이충기. (2017). *관광조사 통계분석*. 서울: 대왕사.
- 전원배, & 박인규. (2001).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호텔 레스토랑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16(1), 187-200.
- 전재균. (2007).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팜스테이 (Farm Stay) 체험프로그램 개발: 추구편익의 시장세분화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9(3), 323-341.
- 허지현, 최현식, & 최영민. (2008). 관광자의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농촌체험관광형태별 선호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0(3), 87-107.
- 홍정화. (2011). 인트라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웰빙 관광 프로그램 개발. *호텔경영학연구*, 20(6), 243-256.
- Blackwell, R. D., Miniard, P. W., & Engel, J. F. (2001). *Consumer behavior* (9th ed.). Fort Worth, TX: Harcourt College Publishers.
- Chen, J. S., Huang, Y. C., & Cheng, J. S. (2009). Vacation lifestyle and travel behavior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26(5-6), 494-506. doi:10.1080/10548400903163038
- Chouk, I., & Mani, Z. (2019). Factors for and against resistance to smart services: role of consumer lifestyle and ecosystem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33(4), 449-462. doi:10.1108/JSM-01-2018-0046
- Duncan, H. D. (1969). *Symbols and social theor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Feldman, S. D., & Thielbar, G. W. (Eds.). (1975). *Life Styles: Diversity in American Society*. Little, Brown.
- Frochot, I. (2004). A benefit segmentation of tourists in rural areas: A Scottish perspective. *Tourism Management*, 26(3), 335-346 doi:10.1016/j.tourman.2003.11.016
- Gitelson, R. J., & Kerstetter, D. L.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variables, benefits sought and subsequent vacation behavior: A case study. *Journal of Travel Research*, 28(3), 24-29. doi:10.1177/004728759002800304

32.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33. Iversen, N. M., Hem, L. E., & Mehmetoglu, M. (2016). Lifestyle segmentation of tourists seeking nature-based experiences: The role of cultural values and travel motive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3(sup1), 38-66.
34. Russell, H. I. (1968). Benefit segmentation: A decision-oriented research tool. *Journal of Marketing*, 32(3), 30-35. doi:10.1177/002224296803200306
35. Herawaty, T., Tresna, P. W., & Hatiqah. (2019). The influence of lifestyle on the process decision (A study on android users community). *Review of Integrative Business and Economics Research*, 8(2), 344-351.
36. Jang, S. C., Morrison, A. M., & O'Leary, J. T. (2002). Benefit segmentation of Japanese pleasure travelers to the USA and Canada: Selecting target markets based on the profitability and risk of individual market segments. *Tourism Management*, 23(4), 367-378.
37. Jang, S. C., & Ryu, K. (2006). Cross-balance sheet interdependencies of restaurant firms: 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5(1), 159-166. doi:10.1016/j.ijhm.2004.12.011
38. Kim, S. S., Agrusa, J., Lee, H., & Chon, K. (2007). Effects of Korean television dramas on the flow of Japanese tourists. *Tourism Management* 28(5), 1340-1353. doi:10.1016/j.tourman.2007.01.005
39. Morakabati, Y., & Kapuściński, G. (2016). Personality, risk perception, benefit sought and terrorism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8(5), 506-514. doi:10.1002/jtr.2068
40. Morrison, A., & Thomas, R. (1999). The future of small firm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11(4), 148-154. doi:10.1108/09596119910263531
41. Orth, U. R., McDaniel, M., Shellhammer, T., & Lopetcharat, K. (2004). Promoting brand benefits: The role of consumer psychographics and lifestyle.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1(2), 97-108. doi:10.1108/07363760410525669
42. Pesonen, J., Laukkanen, T., & Komppula, R. (2011). Benefit segmentation of potential wellbeing tourists.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7(4), 303-314.
43. Plummer, J. T. (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38(1), 33-37. doi: 10.2307/1250164
44. Sohn E., & Yuan, J. (2013). Who are the culinary tourists? An observation at a food and wine festival.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7, 118-131. doi:10.1108/IJCTHR-04-2013-0019
45. Silverberg, K. E., Backman, S. J., & Backman, K. F. (1996).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the psychographics of nature-based travelers to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5(2), 19-29. doi: 10.1177/004728759603500204
46. Srihadi, T. F., Sukandar, D., & Soehadi, A. W. (2016). Segmentation of the tourism market for Jakarta: Classification of foreign visitors' lifestyle typologies.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19, 32-39. doi:10.1016/j.tmp.2016.03.005
47. Voigt, C., Brown, G., & Howat, G. (2011). Wellness tourists: In search of transformation. *Tourism Review*, 66(1/2), 16-30.
48. Wind, J. (1971). Life style analysis: A new approach. In F. C. Allvine (Ed.), *Marketing in Motion* (pp. 302-305).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49. Zins, A. H. (1998) Leisure traveler choice models of them hotels using psychographic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4), 3-15. doi:10.1177/004728759803600401

---

Received 15 May 2022; Revised 05 June 2022; Accepted 17 June 2022



Dr. Kyung Hee Kim is a Researcher of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field is rural tourism.

Address: (55365)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E-mail: khkim08@korea.kr

phone: 82-63-238-2630



Dr. Jae Han Min is a Researcher of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is research field is rural healing tourism.

Address: (55365)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E-mail: jaehan84@korea.kr

phone: 82-63-238-2640



Hye Young Lee is a Researcher of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field is rural tourism.

Address: (55365)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E-mail: mysh5066@korea.kr

phone: 82-63-238-2636